

NEWS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1면 '조기대선'서 계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날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입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며 "아쉽거나 흥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관세 외교' 미국 출장길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K카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된다.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저는 개인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제7공화국을 위해 '입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주 안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몽 후보로 거론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은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 12가지 최후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국민통합, 시대교체,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대선 출마표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3일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이 제기됐지만, 한 권한대행은 최근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으' 글자도 꺼내지 마라"고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밖에도 이번 대선에 출마할 예정인 국민의힘 대권 주자는 이들을 포함해 최대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총력

노·사·민·정 전문가 상호 협력...구체적 해소방안 마련

중소플랜트 업체 노동자 고용 지속 등 의견 반영 건의도

전남도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석유화학업계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회,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주시 등 산업계, 노동계, 지원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8일 구성하고 위기 극복방

안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사)여수산단건설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한국노총여수지역지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지부, 여주시노사민정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전남테크노파크,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근 전남 경제의 중심축 중 하나인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대기업의 신규 투자와 유지보수 사업이 급격히 줄고, 일부 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이 줄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소비 감소와 지역상권 위축으로까지 이어져 지역경제 전체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지지역 지정에 대한 분야별 의견과 노사 간 고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

적 방안을 마련해 4월 중 정부에 고용 위지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여수지역 석유화학 고용위기 지정 신청 후 현실화될 때 기관별 역할, 대응요령, 분야별 객관적 자료 등을 논의했고, 고용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위기대응 협의체를 운영해 지속해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필요하면 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남도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애로사항과 고용위기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석유화학 업계 노·사·민·정 분야별 관계자가 상호 협력해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 보다 많은 지원사업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고문으로 참여한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과 주중섭 도의원은 "고용유지가 불안한 중소기업 업체 노동자의 고용이 지속되도록 정부 지원사업에 노동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일 광양 포스코 광양백운아트홀에서 열린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 사인제과-전남도

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417건 심사 처리·완료

제13차 실무위, 여순사건명예회복위에 심의·의결 요청키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9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유족 417건의 심사를 완료,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키로 했다.

이로써 실무위 심사 처리·완료 건수는 5492건으로, 신고 건수(7465건)의 74%를 처리했다.

이날 실무위에서 심사 통과한 417건은 공적증빙 첨부사건 165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등 252건이다. 개인별 심사의 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

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실무위원회는 최근 국가적 전환기를 맞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 신고 접수(3월 18~8월 31일),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제2회 여순 평화문화상 확대 운영,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준비 등 위령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추진을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인 지금, 국가가 책임있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실무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고,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원 임기가 지난 4일 만료된 만큼, 정부는 올바른 진상규명과 온전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뉴리이트 계열의 단원을 전원 해촉하고, 기획단을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면 재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인증센터' 8월 착공

광주시-기업-기관,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 통합 위크숍

광주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사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인증센터'가 오는 8월 착공한다.

광주시는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인증센터' 실시계획을 이달 중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오는 8월 착공,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인증센터에는 인지(센서)분야 6종, 제어분야 4종, 통신분야 6종, 자율주행 평가장비 5종 등 최신 자율주행 장비 21종이 구축된다.

인증센터가 구축되면 기업의 미래자동차 연구 등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윈드실드 내부 장착형 200m급 장거리 라이다 개발을 비롯해 자율주행차 운전권 전환에 대응해 안전을 높인 조향휠 어센블리 개발, 차량-교통 인프라 간 정보 공유용 로드사이드 유닛(RSU)

개발 등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율주행 및 시뮬레이션,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차 부품 제조공정, 자율주행차 부품 표준 및 신뢰성 확보 등 재직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9일과 10일 이틀간 진도 솔비치에서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2차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2025년 사업 착수 통합위크숍을 개최했다. 위크숍에는 광주시와 LG이노텍, 한국알프스, DH오로티드, 썬에스오시스템, KT, 썬에이치, 한국광기술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지역본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등이 참여해 미래모빌리티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80명 선발

광주도시공사, 신창·하남2지구 2곳...21~25일 접수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9일 공사 관리·운영중인 국민임대주택 2개 단지(신창 도시공사아파트, 하남2지구 다사로1단지아파트)의 예비입주자 1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대규모 주거 세대에 대한 보수공사가 예정되면서 예비입주자를 확

보하기 위한 것으로, 신창에서 80명, 하남에서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급내 내 입주 가능성이 높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광주도시공사 1층에서 현장 접수하며, 등기우편 접수 또한 가능하다.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cc.co.kr) 임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센터(062-225-2280)를 통해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곡성 모듈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바탕이 되는 신기술입니다

휴인주식회사
HUIN Co., Ltd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입니다.

국내 KS 인증서
(구조용집성목재)

국내 신기술 인증서
(합판과 CLT)

내화구조 인증서
(기둥, 벽체, 바닥)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www.huin.kr